

목표(OKR)**1. 목표(Objective)**

AI 기반 헬스케어 챗봇 사업의 주요 목표는 에스크미, 나만의 건강AI코치, 생체나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3년 내 50억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다양한디바이스 환경에서 일관된 UX와 높은 사용성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챗봇 사용자 만족도 4점 이상, 재방문율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오에이지 거래처를 다나아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 시 안정적인 웹 서비스 구조로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맞춤형 챗봇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모듈화하여 서비스 확장성과 기능 관리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 임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일일 평균 사용량과 MAU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기능을 재사용 가능한 UI 컴포넌트로 구조화하여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체 코드 리팩토링율 70% 이상, 신규 기능 도입 시 개발 소요 시간 50%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구조의 이원화를 통해 기존에는 검진센터 중심이었던 고객 타깃을 기업 고객군까지 확대 및 강화에 있어서 각 고객의 니즈에 맞춘 프론트엔드 맞춤형 기능 및 사용자 흐름 설계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높이겠습니다.

2. 핵심결과(Key Results)**1) 에스크미·AI코치·생체나이 2025년 총 매출 5억 원 달성**

에스크미, 나만의 건강 AI코치, 생체나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총 매출 5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사용자 경험 개선과 기술 구조의 확장성 확보를 통해 이 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에스크미는 안정적인 고정 매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고도화 시 참여하여 프론트엔드 전문가로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나만의 건강 AI코치는 기업 및 검진센터 대상 유료 계약 체결 확대를 통해단일 계약 5천만 원 규모의 수익 확보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다국어 지원, 챗봇 인터페이스 시나리오 자동화, 기업별 맞춤형 UI 설정 기능을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체나이와 비즈케어는 현재 계약 이관이 완료된 93개 고객사 기반으로 3억 5천만 원의 매출 확보를 추진 중이며, 향후에는 고객사 유지율 9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UI/UX 개선, 고객 피드백 기반 업데이트 자동화, 장기 운영에 최적화된 기술 아키텍처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프론트엔드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나만의 건강 AI코치' 서비스 이원화 및 POC 완료

나만의 건강 AI코치 서비스는 기업용과 검진센터용으로 이원화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프론트엔드 차원에서 각각의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UI/UX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서비스는 비즈케어와 연계하여 임직원 대상 POC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UI와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5점 만점 기준 4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화 흐름에 따른 챗봇 시각화 UI를 고도화하고 인터랙션 전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검진센터용 서비스는 챗봇 기능이 포함된 패키지형 모델로 전환되며, 프론트엔드에서는 기능별 컴포넌트를 재사용 가능하게 모듈화하고, 다양한 센터별 브랜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와 적용 기반 문서를 기술 중심으로 재정비해, 이후 유

관 부서와의 협업 및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기능 도입에 있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별 UI 테스트 기준, 상태값(RAG) 분기 처리 테스트, 모델 응답에 따른 시각적 오류 점검 항목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공통 QA 체크리스트로 정리되어 전체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원화된 서비스 구조에 맞춰 9월까지 프론트엔드 측에서는 전체 화면 흐름도, 컴포넌트 구조, 테스트 명세를 포함한 문서화를 병행함으로써 유지보수성과 개발 효율을 함께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신규 기능 도입 시 개발 소요 시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사용자 피드백 기반의 반복 개선을 통해 챗봇 응답 시각화 만족도 4점 이상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사용자 경험 최적화 및 재방문을 향상을 통한 챗봇 서비스 수익화 기반 마련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챗봇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페이스 반응 속도를 개선하고,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UX 중심 UI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용과 검진센터용 챗봇은 사용자의 요구와 사용 시나리오가 상이하기 때문에, 화면 구조를 이원화하고, 라우팅 및 상태 관리 구조를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POC 시나리오에 따라 데모 페이지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중심의 유연한 개발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가능한 테스트와 빠른 기능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챗봇 응답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글 토큰 단위 애니메이션 로딩을 적용하여 대화 흐름의 자연스러움을 개선하고, 사용자 체감 반응 속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 흐름 최적화를 위해 프론트엔드 기준의 API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백엔드 개발자 및 LLM(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자와의 협업을 더욱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자와는 주기적인 피드백 루프를 통해 기능별 사용성과 UI 품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접근성(Accessibility) 기준 준수와 반응형 웹 최적화를 병행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프론트엔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용자 재방문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챗봇 서비스의 수익화와 장기적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 생체나이 서비스 고도화 및 홈페이지 구축

생체나이 서비스 고도화 및 다나아데이터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건강검진과 연계한 콘텐츠 추천 로직을 설계하고 1차 적용을 완료하며, 다나아데이터의 공식 홈페이지는 12월까지 전면 리뉴얼을 추진하되, 프론트엔드 측면에서는 반응형 웹 구현, UI 컴포넌트 재정비, 접근성(Accessibility) 기준 반영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유지보수 효율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통합성과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세내용

3. GAP(고민/이슈사항)

1) 에스코미·AI코치·생체나이 2025년 총 매출 5억 원 달성

2025년 목표 매출은 5억 원이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예상 실적은 약 4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약 8천만 원의 매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약 1.5억 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최소 2.7억 원 이상의 매출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2) '나만의 건강 AI코치' 서비스 이원화 및 POC 완료

현재 '나만의 건강 AI코치' 서비스는 기업용과 검진센터용 이원화 구조를 기반으로 UI/UX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에서는 구조적·기술적 과제가 다수 존재합니다.

우선, POC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화면 구성은 기능 단위로 분리된 모듈화 구조가 아닌, 일부 하드코딩된 형태로 구현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 확장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업용과 센터용의 화면 구조가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되어 있어, 사용자별 맞춤형 기능 적용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백엔드 API와의 실질적인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컴포넌트가 mock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용 흐름을 고려한 기능 테스트나 챗봇 응답 시나리오의 유효성 검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발을 위한 기반 문서와 명세 역시 부재한 상황입니다. 전체 화면 흐름도, 컴포넌트 구조도, 데이터 처리 로직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신규 기능 개발 때마다 설계부터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능 구현보다 준비 작업에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Storybook과 같은 UI 개발 도구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컴포넌트 단위 테스트나 협업 간 UI 공유가 어렵고, 빠른 피드백 기반의 반복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보일러플레이트나 초기 개발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아, 프로젝트 세팅·라우팅·상태 관리 등 기초 구조를 매번 새로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개발 속도 저하 및 코드 품질의 일관성 저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구조는 목표한 수준의 확장성과 생산성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모듈화, 문서화, 자동화, 개발 표준화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사용자 경험 최적화 및 챗봇 재방문을 향상으로 서비스 수익에 기여

현재 챗봇 서비스의 프론트엔드 구조는 최적화가 부족한 상태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 지연과 화면 전환 속도 저하 등의 성능 이슈는 UX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 이탈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론트엔드 측에서는 최적화된 렌더링 알고리즘 적용과 사용자 흐름에 기반한 반복 테스트를 통해 인터페이스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는 기능 테스트 및 안정성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이 미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레임워크 기반의 구조가 정립되지 않아 신규 기능 도입이나 요구사항 변경 발생 때마다 일회성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지보수성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UI 컴포넌트의 유연한 분리와 재사용 가능한 구조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보일러플레이트 형태로 정형화해두면 향후 전자 챗봇 프로젝트에 공통 프레임워크로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개발 표준 가이드가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개발 환경 세팅, 코드 구조 설계, 라이브러리 선택 등에 많은 리소스가 반복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품질 편차로도 이어지고 있어, 통합된 개발 기준과 구조화된 세팅 체계의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4) 생체나이 서비스 고도화 및 홈페이지 구축

생체나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콘텐츠 추천 로직 정교화 및 추천 콘텐츠 구성과 조달이 필요합니다. 다만, 내부 리소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타 업무가 우선 배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일정상 후순위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4. 주요전략

1) 챗봇 인터페이스 반응속도 개선 및 UX 고도화

챗봇의 인터페이스 반응속도를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글 기반 토크나이징 로직을 최적화하고 로딩 애니메이션을 보다직관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용자 이탈을 방지하고, 대화의 몰입도를 높이며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 기업용/센터용 챗봇 구조 이원화 및 상태관리 분리 설계

기업용과 센터용 챗봇은 사용자 목적과 사용 흐름이 뚜렷하게 구분되기때문에, 각각의 사용자군에 맞는 UI/UX를 제공하기 위해 챗봇 화면 구조와 상태 관리 방식을 이원화합니다. 라우팅 구조와 상태 흐름을 분리설계하여 기능 고도화 및 유지보수에 용이한 구조를 갖출 예정입니다.

3) 기능별 데모 페이지 구성 및 테스트 환경 구축

POC 진행 시 기능별 요구사항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검증하기 위해, 주요 기능을 데모 페이지 단위로 분리 구성합니다. 이와 함께 QA와 사용자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반복 가능한 기능 개선 사이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UI 구성 요소 Storybook 기반 정형화 및 프레임워크화

공통 UI 구성 요소는 Storybook 기반으로 정형화하여 문서화하고, 이들을 프레임워크화하여 보일러플레이트 형태로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전사 차원의 챗봇 프로젝트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코드 일관성과 유지보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Next.js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한 성능 최적화

Next.js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SSR과 CSR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렌더링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초기 진입 속도와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Dynamic Import 및 Static Props 등 Next.js 고유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체감 속도를 높이고 LCP 지표 개선을 유도합니다.

6) 사이트 정량지표 개선 (접근성/성능/방문율)

사이트의 품질을 정량화하기 위해 Google Lighthouse 기준으로 성능, 접근성, SEO 항목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 접근성과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향으로 UI/UX를 최적화합니다. 또한 GA 기반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해 이탈률과 전환율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

7) 소스코드 구조화 및 개발 표준 수립

프론트엔드 개발 시 반복되는 설정 및 구조 설계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폴더 구조, 상태 관리 방식, API 통신 규칙 등 일관된 개발 표준 가이드를 수립합니다. 이를 문서화하여 팀 내부에 공유하고, 신규 프로젝트시작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 저장소를 구성함으로써 온보딩속도를 높이고 유지보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 한일/할일

1) 챗봇 인터페이스 반응속도 개선 및 UX 고도화

한글 기반 토크나이징 로직을 최적화하고, 로딩 애니메이션을 사용자에게 더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개선하여 챗봇의 응답 체감 속도를 높입니다. 대화 흐름을 자연스럽게 구성함으로써 사용자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이탈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업용/센터용 챗봇 구조 이원화 및 상태관리 분리 설계

기업용과 센터용 챗봇의 사용자 목적에 맞게 라우팅 구조와 상태관리 로직을 분리하여 설계하고, 각 사용자군에 특화된 UI/UX 흐름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기능 간 충돌을 줄이고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를 구현합니다.

3) 기능별 데모 페이지 구성 및 테스트 환경 구축

주요 기능을 데모 페이지 단위로 분리하여 구현하고, POC 단계에서 기능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QA 및 사용자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반복 가능한 기능 개선 사이클을 마련합니다.

4) UI 구성 요소 Storybook 기반 정형화 및 프레임워크화

공통 UI 구성 요소들을 Storybook을 기반으로 정형화하고 문서화하여 일관된 개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프레임워크 형태로 구성하여 전사 챗봇 프로젝트에서 재사용 가능한 보일러플레이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Next.js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한 성능 최적화

Next.js의 SSR과 CSR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렌더링 구조를 도입하여 초기 진입 속도를 높이고,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강화합니다. 또한 Dynamic Import와 Static Props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사용자의 체감 속도를 개선하고 LCP 지표를 향상 유도합니다.

6) 사이트 정량지표 개선 (접근성/성능/방문율)

Google Lighthouse 기준 성능, 접근성, SEO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UI/UX를 사용자 체류 시간 증가와 접근성 향상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동시에 Google Analytics를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탈률과 전환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합니다.

7) 소스코드 구조화 및 개발 표준 수립

프로젝트 전반에서 일관된 폴더 구조, 상태관리 방식, API 통신 규칙 등을 정의하고 개발 표준 가이드를 수립합니다. 이 가이드는 문서화하여 팀원들과 공유하고, 신규 프로젝트 시작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 저장소를 구성하여 온보딩 속도와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입니다.

카테고리 KPI

코멘트 0

이력
이력

일시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항목	필드 이력		
			업데이트된 필드	신규 값	이전 값
2025. 08. 12. 오전 08:40	정다훈	2025년 하반기 목표 수립: 정다훈	목표(OKR)	<p>1. 목표(Objective)</p> <p>AI 기반 헬스케어 챗봇 사업의 주요 목표는 에스컴미, 나만의 건강AI코치, 생체나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3년 내 50억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는 것입니다.</p> <p>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다양한디바이스 환경에서 일관된 UX와 높은 사용성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챗봇 사용자 만족도 4점 이상, 재방문율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p> <p>기존 바이오에이지 거래처를 다나아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 시 안정적인 웹 서비스 구조로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맞춤형 챗봇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모듈화하여 서비스 확장성과 기능 관리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p> <p>내부 임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일일 평균 사용량과 MAU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기능을 재사용 가능한 UI 컴포넌트로 구조화하여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체 코드 리팩토링을 70% 이상, 신규 기능 도입 시 개발 소요 시간 50%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p> <p>특히, 서비스 구조의 이원화를 통해 기존에는 검진센터 중심이었던 고객 타깃을 기업 고객군까지 확대 및 강화에 있어서 각 고객의 니즈에 맞춘 프론트엔드 맞춤형 기능 및 사용자 흐름 설계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높이겠습니다.</p> <p>2. 핵심결과(Key Results)</p> <p>1) 에스컴미·AI코치·생체나이 2025년 총 매출 5억 원 달성</p> <p>에스컴미, 나만의 건강 AI코치, 생체나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총 매출 5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사용자 경험 개선과 기술 구조의 확장성 확보를 통해 이 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p> <p>에스컴미는 안정적인 고정 매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고도화 시 참여하여 프론트엔드 전문가로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나만의 건강 AI코치는 기업 및 검진센터 대상 유료 계약 체결 확대를 통해단일 계약 5천만 원 규모의 수익 확보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다국어 지원, 챗봇 인터페이스 시나리오 자동화, 기업별 맞춤형 UI 설정 기능을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체나이와 비즈케어는 현재 계약 이관이 완료된 93개 고객사 기반으로 3억 5천만 원의 매출 확보를 추진 중이며, 향후에는 고객사 유지율 9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UI/UX 개선, 고객 피드백 기반 업데이트 자동화, 장기 운영에 최적화된 기술 아키텍처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프론트엔드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p> <p>2) ‘나만의 건강 AI코치’ 서비스 이원화 및 POC 완료</p> <p>나만의 건강 AI코치 서비스는 기업용과 검진센터용으로 이원화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프론트엔드 차원에서 각각의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UI/UX를 설계하고 있습니다.</p> <p>기업용 서비스는 비즈케어와 연계하여 임직원 대상 POC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UI와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5점 만점 기준 4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화 흐름에 따른 챗봇 시각화 UI를 고도화하고 인터랙션 전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p> <p>검진센터용 서비스는 챗봇 기능이 포함된 패키지형 모델로 전환되며, 프론트엔드에서는 기능별 컴포넌트를 재사용 가능하게 모듈화하고, 다양한 센터별 브랜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와 적용 기반 문서를 기술 중심으로 재정비해, 이후 유관 부서와의 협업 및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p> <p>또한, 신규 기능 도입에 있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별 UI 테스트 기준, 상태값(RAG) 분기 처리 테스트, 모델 응답에 따른 시각적오류 점검 항목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공통 QA 체크리스트로 정리되어 전체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p> <p>이원화된 서비스 구조에 맞춰 9월까지 프론트엔드 측에서는 전체 화면흐름도, 컴포넌트 구조, 테스트 명세를 포함한 문서화를 병행함으로써유지보수성과 개발 효율을 함께 끌어올릴 계획입니다.</p> <p>향후에는 신규 기능 도입 시 개발 소요 시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사용자 피드백 기반의 반복 개선을 통해 챗봇 응답 시각화 만족도 4점 이상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p>	1. 목표(Objective)2. 핵심결과(Key Results)

일시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항목	필드 이력		
			업데이트된 필드	신규 값	이전 값
				<p>3) 사용자 경험 최적화 및 재방문을 향상을 통한 챗봇 서비스 수익화 기반 마련</p> <p>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챗봇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인터페이스 반응 속도를 개선하고,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UX 중심 UI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용과 검진센터용 챗봇은 사용자의 요구와 사용 시나리오가 상이하기 때문에, 화면 구조를 이원화하고, 라우팅 및 상태 관리 구조를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유지보수성과확장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p> <p>기능별 POC 시나리오에 따라 데모 페이지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의피드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중심의 유연한 개발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가능한 테스트와 빠른 기능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p> <p>챗봇 응답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글 토큰 단위 애니메이션 로딩을 적용하여 대화 흐름의 자연스러움을 개선하고, 사용자 체감 반응 속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 흐름 최적화를 위해 프론트엔드 기존의 API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백엔드 개발자 및 LLM(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자와의 협업을 더욱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p> <p>기획자와는 주기적인 피드백 루프를 통해 기능별 사용성과 UI 품질을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접근성(Accessibility) 기준 준수와 반응형 웹 최적화를 병행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일관된 사용자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p> <p>이러한 프론트엔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용자 재방문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챗봇 서비스의 수익화와 장기적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p>	
				<p>4) 생체나이 서비스 고도화 및 홈페이지 구축</p> <p>생체나이 서비스 고도화 및 다나아데이터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건강검진과 연계한 콘텐츠 추천 로직을 설계하고 1차 적용을 완료하며, 다나아데이터의 공식 홈페이지는 12월까지 전면 리뉴얼을 추진하되, 프론트엔드 측면에서는 반응형 웹 구현, UI 컴포넌트 재정비, 접근성(Accessibility) 기준 반영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유지보수 효율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통합성과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p>	

일시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항목	필드 이력	
			업데이트된 필드	이전 값
		상세내용	<p>3. GAP(고민/이슈사항)</p> <p>1) 에스컴·AI코치·생체나이 2025년 총 매출 5억 원 달성</p> <p>2025년 목표 매출은 5억 원이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예상 실적은 약 4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약 8천만 원의 매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약 1.5억 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최소 2.7억 원 이상의 매출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p> <p>2) ‘나만의 건강 AI코치’ 서비스 이원화 및 POC 완료</p> <p>현재 ‘나만의 건강 AI코치’ 서비스는 기업용과 검진센터용 이원화 구조를 기반으로 UI/UX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에서는 구조적·기술적 과제가 다수 존재합니다.</p> <p>우선, POC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화면 구성은 기능 단위로 분리된 모듈화 구조가 아닌, 일부 하드코딩된 형태로 구현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확장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업용과 센터용의 화면 구조가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되어 있어, 사용자별 맞춤형 기능 적용에도 제약이 있습니다.</p> <p>또한, 현재는 백엔드 API와의 실질적인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컴포넌트가 mock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용 흐름을 고려한 기능 테스트나 챗봇 응답 시나리오의 유효성 검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p> <p>개발을 위한 기반 문서와 명세 역시 부재한 상황입니다. 전체 화면 흐름도, 컴포넌트 구조도, 데이터 처리 로직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신규 기능 개발 때마다 설계부터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능 구현보다 준비 작업에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고 있습니다.</p> <p>추가로, Storybook과 같은 UI 개발 도구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컴포넌트 단위 테스트나 협업 간 UI 공유가 어렵고, 빠른 피드백 기반의 반복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p> <p>이외에도 보일러플레이트나 초기 개발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아, 프로젝트 세팅·라우팅·상태 관리 등 기초 구조를 매번 새로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개발 속도 저하 및 코드 품질의 일관성 저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p> <p>결과적으로, 현재의 구조는 목표한 수준의 확장성과 생산성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모듈화, 문서화, 자동화, 개발 표준화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p> <p>3) 사용자 경험 최적화 및 챗봇 재방문을 향상으로 서비스 수익에 기여</p> <p>현재 챗봇 서비스의 프론트엔드 구조는 최적화가 부족한 상태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 지연과 화면 전환 속도 저하 등의 성능 이슈는 UX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 이탈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p> <p>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론트엔드 측에서는 최적화된 렌더링 알고리즘 적용과 사용자 흐름에 기반한 반복 테스트를 통해 인터페이스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는 기능 테스트 및 안정성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이 미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p> <p>또한, 프레임워크 기반의 구조가 정립되지 않아 신규 기능 도입이나 요구사항 변경 발생 때마다 일회성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지보수성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UI 컴포넌트의 유연한 분리와 재사용 가능한 구조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보일러플레이트 형태로 정형화해두면 향후 전사 챗봇 프로젝트에 공통 프레임워크로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아울러 현재는 개발 표준 가이드가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개발 환경 세팅, 코드 구조 설계, 라이브러리 선택 등에 많은 리소스가 반복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품질 편차로도 이어지고 있어, 통합된 개발 기준과 구조화된 세팅 체계의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p>	<p>3. GAP(고민/이슈사항)</p> <p>4. 주요전략</p> <p>5. 한일/할 일</p>

일시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항목	필드 이력		
			업데이트된 필드	신규 값	이전 값
				<p>4) 생체나이 서비스 고도화 및 홈페이지 구축</p> <p>생체나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콘텐츠 추천 로직 정교화 및 추천 콘텐츠 구성과 조달이 필요합니다. 다만, 내부 리소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타 업무가 우선 배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일정상 후순위로 조정되고 있습니다.</p> <p>4. 주요전략</p> <p>1) 챗봇 인터페이스 반응속도 개선 및 UX 고도화</p> <p>챗봇의 인터페이스 반응속도를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글 기반 토큰나이징 로직을 최적화하고 로딩 애니메이션을 보다직관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용자 이탈을 방지하고, 대화의 몰입도를 높이며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p> <p>2) 기업용/센터용 챗봇 구조 이원화 및 상태관리 분리 설계</p> <p>기업용과 센터용 챗봇은 사용자 목적과 사용 흐름이 뚜렷하게 구분되기에, 각각의 사용자군에 맞는 UI/UX를 제공하기 위해 챗봇 화면 구조와 상태 관리 방식을 이원화합니다. 라우팅 구조와 상태 흐름을 분리설계하여 기능 고도화 및 유지보수에 용이한 구조를 갖추 예정입니다.</p> <p>3) 기능별 데모 페이지 구성 및 테스트 환경 구축</p> <p>POC 진행 시 기능별 요구사항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검증하기 위해, 주요 기능을 데모 페이지 단위로 분리 구성합니다. 이와 함께 QA와 사용자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반복 가능한 기능 개선 사이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p> <p>4) UI 구성 요소 Storybook 기반 정형화 및 프레임워크화</p> <p>공통 UI 구성 요소는 Storybook 기반으로 정형화하여 문서화하고, 이들을 프레임워크화하여 보일러플레이트 형태로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전사 차원의 챗봇 프로젝트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코드 일관성과 유지보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p> <p>5) Next.js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한 성능 최적화</p> <p>Next.js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SSR과 CSR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렌더링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초기 진입 속도와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Dynamic Import 및 Static Props 등 Next.js 고유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체감 속도를 높이고 LCP 지표 개선을 유도합니다.</p> <p>6) 사이트 정량지표 개선 (접근성/성능/방문율)</p> <p>사이트의 품질을 정량화하기 위해 Google Lighthouse 기준으로 성능, 접근성, SEO 항목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 접근성과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향으로 UI/UX를 최적화합니다. 또한 GA 기반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해 이탈률과 전환율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p> <p>7) 소스코드 구조화 및 개발 표준 수립</p>	

일시	업데이트	업데이 트된 항목	필드 이력		
			업데이트 된 필드	신규 값	이전 값
				<p>프론트엔드 개발 시 반복되는 설정 및 구조 설계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폴더 구조, 상태 관리 방식, API 통신 규칙 등 일관된 개발 표준 가이드를 수립합니다. 이를 문서화하여 팀 내부에 공유하고, 신규 프로젝트시작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 저장소를 구성함으로써 온보딩속도를 높이고 유지보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p> <p>5. 한일/할일</p> <p>1) 챗봇 인터페이스 반응속도 개선 및 UX 고도화</p> <p>한글 기반 토크나이징 로직을 최적화하고, 로딩 애니메이션을 사용자에게 더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개선하여 챗봇의 응답 체감 속도를 높입니다. 대화 흐름을 자연스럽게 구성함으로써 사용자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이탈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p>2) 기업용/센터용 챗봇 구조 이원화 및 상태관리 분리 설계</p> <p>기업용과 센터용 챗봇의 사용자 목적에 맞게 라우팅 구조와 상태관리 로직을 분리하여 설계하고, 각 사용자군에 특화된 UI/UX 흐름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기능 간 충돌을 줄이고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를 구현합니다.</p> <p>3) 기능별 데모 페이지 구성 및 테스트 환경 구축</p> <p>주요 기능을 데모 페이지 단위로 분리하여 구현하고, POC 단계에서 기능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QA 및 사용자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반복 가능한 기능 개선 사이클을 마련합니다.</p> <p>4) UI 구성 요소 Storybook 기반 정형화 및 프레임워크화</p> <p>공통 UI 구성 요소들을 Storybook을 기반으로 정형화하고 문서화하여 일관된 개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프레임워크 형태로 구성하여 전사 챗봇 프로젝트에서 재사용 가능한 보일러플레이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5) Next.js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한 성능 최적화</p> <p>Next.js의 SSR과 CSR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렌더링 구조를 도입하여 초기 진입 속도를 높이고,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강화합니다. 또한 Dynamic Import와 Static Props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사용자의 체감 속도를 개선하고 LCP 지표를 향상을 유도합니다.</p> <p>6) 사이트 정량지표 개선 (접근성/성능/방문율)</p> <p>Google Lighthouse 기준 성능, 접근성, SEO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UI/UX를 사용자 체류 시간 증가와 접근성 향상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동시에 Google Analytics를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탈률과 전환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합니다.</p> <p>7) 소스코드 구조화 및 개발 표준 수립</p> <p>프로젝트 전반에서 일관된 폴더 구조, 상태관리 방식, API 통신 규칙 등을 정의하고 개발 표준 가이드를 수립합니다. 이 가이드는 문서화하여 팀원들과 공유하고, 신규 프로젝트 시작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 저장소를 구성하여 온보딩 속도와 유</p>	

일시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항목	필드 이력		
			업데이트된 필드	신규 값	이전 값
2025. 07. 06. 오후 10:16	SUNGMIN KWON (권성민)	목표 관리: 정다훈	목표(OKR)	지보수 효율성을 높입니다. 1. 목표(Objective)2. 핵심결과(Key Results)	
			상세내용	3. GAP(고민/이슈사항)4. 주요전략5. 한일/할일	
			목표 카테고리	KPI	